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이 재 봉*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1) 『火山島』의 중층적 의미 |
| 2. '<在日>'과 '<在日>하다'의 의미 | (2) '南承之'와 <在日>의 논리 |
| 1) '<在日>'과 '<在日>하다'는 것. | 2) <在日>한인과 문학의 존재방식 |
| 2) 텅빈 벅속과 '소라게'의 삶. | (1) <재일>과 공적 영역의 삶 |
| 3. <在日>의 논리와 소설적 표출 양상 | (2) 공적 담론 지향과 문학의 존재방식 |
| 1) 『火山島』에 나타나는 <在日>의 논리 | 4. 맺음말 |

1. 문제제기

해방 이후부터라고 하더라도 재일 한인 문학의 역사는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는다. 그리고 재일 한인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단순한 시간적인 축적을 넘어 일본 내에서도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김석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작가는 재일 조선인의 존재와 함께 일본어로 문학 행위를 계속해 왔고, 지금은 하나의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장혁주나 김사량으로 대표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김달수·이희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2 한국문학논총 제 32 집

성·고사명·김학영·정승박·김태생·김석범 등의 소설가, 허남기·김시종·강순 그리고 최근 사망한 오립준 등의 시인이 있다. 또 창작은 아니지만 문예평론가로 안우식·윤학준·입전혜·김학현 등이 활동,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로써 재일조선인 작가는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할 수 있다.¹⁾

물론 위의 언급이 20여 년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재일조선인 작가가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자부심섞인 발언에서 보듯이 재일 한인 문학은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양지, 원수일, 종추월, 유미리 등 주목받는 많은 작가가 등장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일본문단에서도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재일 한인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나 재일 한인 문학의 국문학 귀속 여부 등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일본문단 내에서 제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의 재일 한인 문학 논의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재일 한인 문학을 일본 내의 여타 소수민족의 문학과 같은 것으로 보아, 오키나와 문학, 아이누 문학, 재일외국인 문학(화교를 포함한 서양인 문학) 등과 동일한 차원의 문학으로 파악하는 시각²⁾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말할 것도 없이 지극히 일본적인 논리에서, 재일 한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문학적 독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³⁾

최근 들어 재일 한인 문학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정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이한창의 박사학위 논문인 『재일교포 문학의 작품성향 연구』⁴⁾와 유숙자의 『在日

1) 金石範, “在日朝鮮人 文學”, 『在日の 思想』(筑摩書房, 1981. 119쪽)

2) 川村 濂, “在日する者’の文學”, 『戦後文學を問う』(岩波書店, 1995), p.216. 여기서는 齋淑子, 『在日한국인 문학연구』(월인, 2000), p.17에서 재인용

3) 이외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재일 한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유숙자, 앞의 책, pp.14-17 참조.

4) 중앙대 대학원, 1996. 12.

한국인 문학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한창은 이외에도 『在日韓國人文學의 역사와 그 현황』⁵⁾, 『재일 교포문학의 주제 연구』⁶⁾ 등의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의 선구적 업적을 일구어 내고 있다. 또한 유숙자는 앞의 책에서 박사학위논문인 『1945년 이후 在日한국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연구』⁷⁾를 비롯하여 『金鶴詠論』, 『李良枝의 소설 <각(刻)>에 나타난 재일성 연구』, 『오사카 이카이노의 재일한국인 문학』 등의 논문을 실어 해방 후의 재일 1세대의 문학에서부터 2, 3세대에 이르는 재일 한인 문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이 외에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에서도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재일 한인 문학의 민족적 정체성과 일본 내에서의 차별받는 소수 민족의 문학이라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재일 한인 문학의 핵심적인 특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하면 한국내의 입장만 강조할 위험성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일 한인의 문학은 여전히 소수의 주변부 문학으로 밀려나거나 하나의 특수한 문학적 현상으로 치부되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일 한인 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내적인 논리와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일 한인 작가들이 스스로를 주변부의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인식과 문학적 바탕을 밝혀내는 것이 논리적 우선 순위일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고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재일 한인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문단을 넘어서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대불차랑상(1984년), 마이니치예술상(1998년)을 수상하는 등 그 역량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김석범의 작품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김석범의 작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는 그의 작품이 <재일

5) 『日本研究』5, 중앙대 일본연구소, 1990. 2.

6) 『日本學報』29, 한국일본학회, 1992.

7) 고려대 대학원, 1997. 12.

>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在日>’과 ‘<在日>하다’의 의미

1) ‘<在日>’과 ‘<在日>하다’는 것.

1998년 재일 한인 작가인 김석범(金石範)과 이회성(李恢成) 사이에 이른바 ‘국적’으로 인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火山島』와 『다듬이질하는 여자』로 일본문단에서 대불차량상과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할 만큼 작가적 역량도 인정받고 있는 터여서 이들의 논전은 예사로이 보아넘길 대목이 아니다. 논쟁은 이회성이 ‘조선’이라는 국적이닌 국적⁸⁾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단된 것이다⁹⁾. 이회성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두고 김석범은 ‘고난없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며 강력히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이회성은 ‘소수로 전략한 무국적자는 교포사회에서 전위적 역할을 못하고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기존재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여 논쟁을 촉발시킨다.

이 논쟁은, 1998~9년 당시 68만 명 정도의 재일 한인 중에서 ‘조선’을 국적으로 고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의미나 파장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매년 4~5000

8) 재일 한인들의 국적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 재일 한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작 “조선”이라는 국적이닌 국적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국적이 남한이나, 북한이나를 나누려고 한다면 북한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지만, 정작 이들은 남북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9)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이회성의 논리는 ‘韓國國籍取得者の記’라 하여 『新潮』(1998. 6)에 실린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세기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문학’(『창작과비평』, 1998년 가을)이라는 글에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명 정도가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이회성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조선”을 고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은 국적이라는 현상적인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선택·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적 아닌 국적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그들은 1948년 남북한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분단 이전의 조국을 상징하는 “조선”을 주장하고 이를 고집했던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재일 한인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통일에 그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在日>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시중(金時鐘)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재일>’을 주무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 이는 곧 <재일(在日)>이라는 조건이나 상황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일 한인들이 사용하는 <在日>이라는 용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실 <在日>의 ‘在’에는 ‘있다’라는 동사(動詞)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在日)’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일본에 (살고) 있다’라는 완결된 의미구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일>이라고만 하지 않는다.

10) 金石範, ‘いま「在日」にとって「國籍」とは何か’, 『세계』(1998.10), p.132

11) 김시중의 이 발언은 조총련이 재일의 모든 작가와 모임을 사상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려 할 때,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던 것이다. 즉 김시중은 자신이 주재하던 잡지에 경직되어 가는 조직의 획일주의와 교조주의를 비판하면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재일>이라는 조건을 주무기로 한 문학으로서, 반드시 조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이 때문에 김시중은 그의 책들이 긴급 회수당하는 등의 필화를 겪게 된다. 김시중 외, 『新日本文學會 <在日>文學會議 資料-在日朝鮮人文學に缺けているもの』, 新日本文學會 <在日>文學會議, 1972. p.11. 여기서는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의 작품성향연구-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6. p.19에서 재인용.

- ① 在日する朝鮮人としての複雑で微妙な立場を,¹²⁾
- ② 「在日」する朝鮮人の日本語文學の營みがわれわれ日本人, 日本國の姿を照射する。¹³⁾
- ③ ここでいう「在日」は「在日朝鮮人」のそれを指しているのだが、いうまでもなく「在日」しているのは 朝鮮人だけではない。¹⁴⁾

-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문들에서는, <在日>이라는 명사화되어 있는 용어 뒤에 ‘する’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다. 이런 용법은 ‘これは日本在住の朝鮮人にとって’¹⁵⁾ 등에서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する’라는 동사는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명사 뒤에 접속될 경우 그 명사를 동사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재일>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명사로 굳어진 상황이라면, 이를 다른 말과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사 ‘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일>이란 명사 뒤에 이를 동사화하는 ‘する’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의식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在日>을 “일본에 산다(日本ですむ)” “일본에 있다(日本にいる)”라고 하지 않고 ‘재일한다(在日する)’고 하는 경우 ‘<재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 즉 ‘재일한다’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 행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 스스로가 주변부의 존재이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재일> 행위는 여타의 소수 민족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변별되는가 하는 점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단서가 되는 것은 김시중의 ‘<재일>’을 무기로 하여야 한다는 앞서의 언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이를 극복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재일>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

12) 林浩治,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新幹社, 1991.), p.8

13) 小野悌次郎,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學』(新幹社, 1998), p.199

14) 金石範, 『在日 思想』(筑摩書房, 1984), p.7

15)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講談社, 1998), p.40

는 것이다.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통일의 거멀못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재일>한인의 문학은 ‘<재일>하다’라는 행위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시키는가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1945년 해방되었을 당시부터 1946년 3월까지, 약 13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일본에 남아있던 646,943 명 중 514,035 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사실¹⁶⁾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방 직후 대다수의 재일 한인은 대부분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 사령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통화와 재산을 제한한 점, 미군정하의 조국이 보여준 정치적, 경제적 혼란¹⁷⁾ 등으로 <재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재일 한인들은 일본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나름의 역할과 논리를 찾아야 했고 이와 같은 부분이 재일 한인 문학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재일 한인 문학을 논의할 때, 주로 문제삼아 온,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나,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차별적 대우 등은 사실 이차적인 문제이다. 재일 한인 스스로가 한국인 또는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해방 후 재일 1세대의 경우,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정체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오히려 제2, 3세대의 작가와 한인들에게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차별 대우 등은, 일본으로의 귀화를 거부하고 <재일>을 고집하는 경우, 감내하거나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일 한인 문학의 주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재일>을 고집하는 근본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족적 차별 등의 현실적 제약이 한국인 또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화시켜 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

16) 四十五年八月十五日, 日本は敗れ, 朝鮮は解放された。強制連行者を含む多くの朝鮮人が獨立した故國へ歸っていった。四十六年三月までに約一三〇萬人が歸國下といわれる。その當時で残っていた六四萬六九四三人のうち五一萬四〇三五人が歸國を希望していた。川西政明, “語り部の誕生-「在日」の思想の原點”, 金石範, 『新編 在日の思想』(講談社, 2001), p.300

17) 川西政明, 같은 글, p.300-301

이다.

그러므로 <재일>한인들에게서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상황이나 문제는 ‘<재일>하다’라고 하는 적극적 행위의 논리와 특성을 밝혀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일>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김석범의 작품은 하나의 전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텅빈 뱃속과 ‘소라게’의 삶.

김석범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몇 차례 한국을 다녀간 것¹⁸⁾을 제외하면 줄곧 일본에서 살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처녀작인 『까마귀의 죽음』에서부터 『화산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 왔다. 이는 그 자신이 오사카 아닌 제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4·3이라는 참극이 준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기

18) 김석범은 1925년,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온 3, 4개월 뒤에 오사카에서 태어난다. 즉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셈이다. 김석범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이다. 첫 번째 조선으로 온 것은, 그가 14세이던 1939년 여름으로 이 때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몇 개월 머물렀다. 그리고 18세이던 1943년 가을 다시 제주도에 와서 1944년 여름까지 숙모집과 한라산 기슭의 관음사(觀音寺) 등에서 지낸다. 그리고 중국으로 탈출할 결심을 하고 징병검사를 받는다는 핑계로 1945년 3월에는 서울로 왔다가 4월초에 제주도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다시 서울로 온다. 그리고 5월에는 발진 티푸스에 걸려 일개월 가량 입원하기도 하고, 강원도의 한 절에서 10일 정도 요양을 하다가, 6, 7월 경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 간다. 해방 후 11월에 다시 서울에 와서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는 한편 1946년 정인보가 설립한 국학전문학교 국문과에 장용석, 김동오 등과 입학했다가, 여름에 일개월 예정으로 일본에 밀항하는데 그 이후 그는 1988년까지 한국에 올 수 없게 된다. 1988년 11월, 42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여 22일간 머무른다. 그리고 1996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민족문학인대회”에 화산도의 취재를 겸하여 참가하여 약 20일 정도(이중 10일 정도는 제주에서 머문다) 머문다. 1999년 7월, 제주 4·3 사건 50주년 국제심포지움의 마지막날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참가한다(애초에 그는 이 행사에 처음부터 참가할 생각이었지만 재일한국영사관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한 300여명 전원이 한국정부에 항의하였고 그 결과 그는 마지막날에야 겨우 참가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월인, 2000), pp.47-48, 그리고 『新編 在日の思想』講談社, 2001)의 金石範 자신이 작성한 연보(pp.319-329)를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도 하다.¹⁹⁾ 그에게서 제주도는 곧 조국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문학은 왜 제주도 또는 조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김석범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일인칭 서술자를 내세워 1960년대의 일본생활을 그리고 있는 『虛夢譚』은 이와 같은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지니고 있다. 김달수, 이희성, 김학영 등 동시대의 작가들이 ‘나’ 또는 ‘나의 가족’을 핵심으로 하여 조선의 해방과 <재일>의 인간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김석범은 ‘나’와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²⁰⁾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석범의 소설에서 일인칭 서술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작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虛夢譚』은 황당한 꿈 이야기로 시작된다. ‘나’의 뱃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라게가 창자를 모두 파먹어 버렸고, 내장이 없는 상태로 서울로 날아가 창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파고다 공원에서 열리는 대중집회에 참가한다. 그리고는 창자가 몽땅 도려내진 뒤의 뱃속을 채울 만한 것을 찾아 조선팔도를 떠돌다 ‘홍길동’의 정령을 만난다. 홍길동의 정령이 ‘나’를 창자가 없는 인간이며 그래서 진짜 조선인이 아니라고 비난하자, ‘나’는 오히려 조선을 버리고 이상국(理想國)으로 도망친 홍길동이야말로 자존심도 없는 존재라며 되받아친다. 그렇지만, ‘나’는 홍길동이 당당한 조선의 창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홍길동의 정령도 떠나버린 언덕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창자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다 깨어나는 것이다.²¹⁾

이런 꿈을 꾸게 된 원인은 현실에서의 개복수술 때문이다. ‘나’는 창자를 삼분의 일쯤 떼어낸 개복수술 후의 경과를 살피는 린트겐 사진을 찍기 위하여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 자신도 어젯밤의 꿈이 ‘명치에서 아래까지 24센티미터의 큰 메스자국 남겨놓은 개복수술과, 바름을 먹어야 한다는 상상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²²⁾고 말하고 있다.

19) 김석범, “濟州道のこと”, 『ことばの呪縛-在日朝鮮人文學と日本語』(筑摩書房, 1972), p.248

20) 川西政明, 앞의 글, pp.301-302

21) 金石範, 『虛夢譚』, 『鴉の死』(講談社, 1973), pp.283-286

22) 金石範, 같은 책, p.289

그러나 이런 황당한 꿈을 꾸는 것은 수술 때문만은 아니다. 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만 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버릇²³⁾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인이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공허감이 위와 같은 황당한 꿈을 꾸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다.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으며, 지금도 일본에서 살고 있다²⁴⁾. 그리고 주위는 온통 일본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나'의 삶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おれの周囲はみんな日本人だったんだ>
私の鼻先には多くの首すじがあった。そこには土のにおいがなかった。土を深く閉じ込めたコンクリートのにおいが車中にする。<これは、大變なことなんだなあ>私はこれから漆喰とアルコールにおいの滲みだ病院へ行く。ここはまぎれもない日本である。私は日本の病院へ行き、日本のバスに乗り、日本語をしゃべり、アルバイトに日本語の原稿の校正もし、ここが日本であることもたまには忘れてしまうその日本の中にいる。²⁵⁾

'나'는 조선에 몇 번 다녀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일본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나'가 지금 있는 이 곳이 흠냄새가 나지 않는 일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조선을 지향하지만, 조선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다. 이는 곧 결과 속이 다른, 소라계에게 창자를 파먹혀 속이 모두 비어버린 허망한 삶을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일본에 살면서 조선을 지향하는 '나'의 삶이 소라껍질을 자기의 집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소라계의 삶인지도 모른다²⁶⁾. 그래서 이곳이 일본이라고 인식하는 순

23) 金石範, 같은 책, pp.289-290. 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나'는 구두주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4) 이같은 사실은 김석범의 전기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소설의 성격을 자전적인 것이거나, 적어도 작가 자신의 모습이 '나'에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25) 金石範, 앞의 책, p.292.

26) '나'는 일본에 산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은 '나'가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가 아닐 뿐 아니라 조국보다 오래 살아 온 공간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국만 아니었다면 '나'는 시민권을 얻어 일본에 귀화해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私には一瞬不思議な氣する。こ

간, 꿈 속에서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선어와 조선옷²⁷⁾까지 ‘나’에게 심한 공허감과 단절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허감은 “과거”가 없다는 단절의식에서 비롯된다. 일본에서 자라 으면서도 일본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동화되어 살아 갈 수 없는 삶의 단절성이 나를 소라게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에서 유년을 보낸 일본인의 경우와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난다. 유년을 서울에서 보낸 노인이 술집에서 장구를 치면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중학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저널리스트 ‘F’가 그 노인을 부러워하면서 서울을 회상하는 것처럼 ‘나’는 유년을 회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구치는 노인이나 F에게는 국가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유년을 회상하는 것은 쉽게 다녀오기 어려워진 서울이나 되돌릴 수 없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 내는 것이다. 이 아쉬움이 집착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나’의 생각처럼 조선이나 서울은 ‘식민지 정착민의 아들을 위해, 그들의 과거를 위해’²⁸⁾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分かるなあ、それはだれも否定なんかできはしない。それが昔の支配者たちの懐古趣味でもないかきりはね。しかしそうなれば、私の場合なんかはどうなるんだろう。Fさんとは對照的だ。Fさんに過去がないとすれば 日本で育った私や在日朝鮮人にもその意味では過去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のは、Fさんは朝鮮に故郷があると感じ、私は日本に故郷があると感じられないから一。私は私の中にいっぱいであるはずの日本にべったりできない。Fさんは朝鮮を愛するといい、朝鮮はわか魂(ソウル)と呼び、私は日本を愛すると確信をもっていえないこの屈折した心情はどう説明すればよいもか……その点ではね、Fさんは私より幸福といえる」²⁹⁾

こは日本なのである。私は日本にいるのを感じる。しかもここはわたしの通過して行く旅行先ではない。自分の祖國より長く、とりかえしのつかぬくらい長く住みついたところである一。これがかつての支配國でなかったならば、市民權をえて歸化してしま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條件のわれわれをその中に入れてる日本である。”, 김석범, 같은 책, p.303

27) ‘나’는 지난 밤의 꿈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꿈 속에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옷을 입고 다녔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에 새로운 감동을 주기도 했었다. 金石範, 같은 책, pp.277-278

28) 金石範, 앞의 책, p.306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F' 경우, 중학시절을 보낸 서울의 '비탈길과 황토길'을 그리워하며 조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차이를 지적한다. 물론 '나'는 'F'가 느끼는 유년예의 향수가 다시 한번 지배자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식의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F와 같은 사람이 느끼는 향수가 유년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 하더라도, '나'와 '재일조선인'들에게서의 일본은 그들에게서의 조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나'와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피지배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F처럼 일본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고향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는 '제편에는 순수하게 외국으로 살아온 민족주의자'³⁰⁾였다.

'나'와 재일조선인의 공허감이나 단절감, 그로 인한 소라계같은 삶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공허감과 단절감은 조국의 분단이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일조선인은 점점 일본에 동화되어 간다는 위기감으로 더욱 증폭된다.

數日前, Y驛界限をいっしょに歩いた友人が、笑いでつくろっていった言葉が聞こえてきた。〈……もう二十年以上がたった。もしこれから十年、祖國の分斷がつづくとするば、在日朝鮮人はどうなると思う？ いわゆる一世はだんだん無くなっていき、二、三世ばかり増えていく。日本へ同化の作用は拍車がかかるとは思わないかね。事態は深刻ですよ。〉私から視線を外らせた向い合せの初老の洋服の男は、その瞬間私についてな考えていただろう。まさか朝鮮人のことは、つまり朝鮮人としての私のことは考えてもないだろう。31)

친구의 말처럼 일본에 동화되어버리는 것은 결국 창자가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선인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스스로를 일

29) 김석범, 앞의 책, p.307.

30) “東京にきていた十九歳の私(이때는 1945년 해방되던 당시이다-인용자)の, 自分では純粹に思いつめて生きて來た民族主義者のつもりでいた。”, 金石範, 같은 책, p.294.

31) 金石範, 같은 책, pp.308-309

깨워야 한다. 이것을 그만 두면 소라게처럼 일본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창자 없는 인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재일 조선인의 실존적 상황이며, 존재의 조건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은 소라껍질을 벗고 ‘창자’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³²⁾. 이것을 멈출 때,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의 조건은 동시에 소멸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재일’은 더 이상 적극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김석범에게 있어 <재일>이란 행위는 일생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의미를 지닌다. 이 <재일> 행위를 멈출 때, 작가로서의 그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그가 발표한 많은 작품들은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확인임과 동시에 존재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³³⁾.

32) 바로 이 점에서 ‘나’가 선술집 마담인 U에게서 발견해내는 이미지는 일상적 차원에서 무뎠어 가는 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 덕분에 알게 된 U는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U의 원형을 1945년 8월 15일 전차에서 만났던, 일본의 패전을 슬퍼하며 울음을 쏟아놓던 여인에게서 찾아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1945년 8월 15일 ‘우에노’로 가는 전차 안에서 일본의 패전을 슬퍼하며, ‘나’에게도 같이 슬퍼할 것을 강요했던 젊은 여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U가 지녔던 묘한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일상적인 권태에 시달리는 일본 주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는 U를 신비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별 부담없이 술집을 나올 수 있게 된다.

33)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석범의 창작행위는 이청준과 매우 닮았다. 이청준의 『쓰여지지 않는 자서전』에서 서술자인 ‘나’의 기억은 온통 허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진술을 강요하는 신문관에게 허기에 관한 내용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를 불신한 신문관은 마침내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나’는 잡지에 당선된 소설 때문에 국면이 전환된다. 신문관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소설이라는 것이 가장 성실한 진술의 한 가지 형식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대개 가장 성실한 형식으로 거짓없는 자기진실을 이야기한다, 소설을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진술보다도 그것이 먼저 채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설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이청준, 『쓰여지지 않는 자敍傳』, 중앙일보사, 1985, pp.221-2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설을 쓰는 동안만 사형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나’가 소설쓰기를 그만 둔다면, 곧 사형이 집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 소설쓰기가 곧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

3. <재일>의 논리와 소설적 표출 양상

1) 『火山島』에 나타나는 <재일>의 논리

(1) 『火山島』의 중층적 의미

<재일>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개념으로 볼 때, 일본에 사는 재일 한인들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일본 속의 안온한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위의 차원이다. 다시 말해 <재일>을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일>한인 또는 작가의 존재적 기반이고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재일>이라는 행위가 지향하는 논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김석범의 일생의 작업이라 할 수 있는 『火山島』를 통해 <재일>의 논리를 찾아보고자 한다.³⁴⁾

소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작품의 주인공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의 행위와 사고의 논리가 소설이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火山島』의 주인공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는 시각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는 ‘이방근’을 『火山島』의 주인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소설이 진행되어 갈수록 이방근의 논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남승지 등의 인물은 그의 종속변수가 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⁵⁾ 반면 김시중은 ‘이방근’을 반쪽의 주인공이라 하면서 ‘남승지’를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재일인’이었던 남승지는 단발적이긴 했지만 공화국과 조총련에 대한 통렬한 비판”³⁶⁾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시중의 이와 같은 입장은 『火

이다.

34) 물론 이 작업은 『火山島』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火山島』는 아주 방대한 장편소설이며, 따라서 이 소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적하는 작업 역시 짧은 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火山島』에 대한 더욱 세밀한 작업은 다음으로 미룬다.

35) 中村福治,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 4·3항쟁과 재일한국인문학』(삼인, 2001), pp.63-64

36) 김시중, ‘김석범의 장편소설 『화산도』의 완결에 붙여’, 『每日新聞』, 1997. 12.11.

山島』를 구성하는 논리가 ‘이방근’과 ‘남승지’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오노 데지로(小野憐次郎) 역시, “작가가 장편 속에서 남승지의 세계와 이방근의 내면 세계를 구성해나가고 있는 것은, 소설세계를 중층화시켜, ‘4·3’사건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³⁷⁾고 하면서 김시종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火山島』는 ‘남승지’의 시각으로 시작된다. 그가 남로당원으로서 제주의 성내에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작품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작품에서 차지하는 ‘남승지’의 비중이 만만찮음을 시사한다. 아무리 장편이라고 해도 큰 비중이 없는 인물이라면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비록 작품의 서두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승지는 ‘序章’과 ‘第一章’ 전체를 이끌어어나가는 인물일 뿐 아니라, 그 분량도 95페이지에 이른다.³⁸⁾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노데지로의 지적처럼 남승지는 이방근과 계속해서 교차 또는 중첩되면서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이방근 앞에 나오면 제대로 반론도 못하는 데다 혁명당원으로서의 자질에 어울’³⁹⁾리지 않는다고 하여 주인공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방근 역시 때때로 논쟁을 피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혁명당원의 자질을 지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⁰⁾ 이런 태도는 자칫 작품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火山島』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작품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극좌와 극우를 모두 거부하는 ‘이방근’의 논리이고, 다른

37) 作家が長篇の中で南承之の世界と李芳根の内面世界を構成していったのは、小説世界を重層化して、「四・三」の總體の狀況を形造るために必須の條件だった。小野憐次郎,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學』(新幹社, 1998), p.128

38) 金石範, 『火山島 I』(文藝春秋, 1983) 참조

39) 中村福治, 앞의 책, p.64

40) 이방근은 유달현, 강몽구, 박갑삼 등의 끈질긴 입당제의를 끝내 거부한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기회주의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방근은 오히려 분명한 자의식을 지니고 그에 맞는 논리와 행동을 보여주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사실 남승지, 양준오, 김동진 등 이 작품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두 이방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들 역시 ‘당’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식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의 섬에서 빠져나가 <재일>을 예비하는 '남승지'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점 이외에도 <재일>의 논리를 중요한 모티프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이 작품의 논리를 모두 따져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의 논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남승지'를 중심으로 한 <재일>의 논리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南承之'와 <재일>의 논리

『火山島』에는 몇 가지 형태의 <재일>이 나타난다.

우선, 하타나카 요시오(畑中義雄)와 같은 형태의 <재일>이다. 하타나카 요시오는 한국이름이 이용근이며, 이방근의 친형이다. 그는 일본에서 의사가 되었고 일본여자와 결혼하였으며,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근 등은 그를 형제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4·3봉기에 자금을 댈 만큼 조선의 현실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남승일'과 같은 형태의 <재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승지의 사촌 형인 그는 남승지를 데려다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 일본에서 온갖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현재 장화 등을 만드는 고무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내에서의 민족사업에 적극적이며, 제주도의 무장봉기 자금으로 40만엔을 내놓는 한편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남승일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혁명적인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승지를 빨리 결혼시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남승일과 같은 형태의 <재일>은 일본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윤상길'의 <재일>을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일본유학생이던 그는 해방이 되자 제주도로 돌아와 교사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현실에 염증을 느껴 부모의 권유를 핑계로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당시 한국의 현실에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이 선택했던 길이기도 했겠지만 작품에서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윤상길은 일본에서 당의 가짜 신임장을 만들어 특수임무를 띠고 일본에 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까지 한다.

네 번째로 ‘남승지’의 <재일>이다. 남승지는 제주도에서 투쟁하다, 4·3이 끝날 즈음 이방근이 주선하여 일본으로 밀항하게 된다. 물론 남승지의 <재일>은 윤상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그의 일본행은 같이 유격대 활동을 했던 김동진, 양준오 등이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남승지의 <재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승지’는 『火山島』의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남승지야말로 <재일>이라는 행위의 한 축을 떠받치는 인물이다.⁴¹⁾

‘남승지’는 해방이 되자 ‘조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서울에 돌아온다. 물론 서울에 돌아올 때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제주도 출신의 조선인으로서,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던 그⁴²⁾는 해방된 조선에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서울로 왔던 것이다.

そのころ南承之はP専門學校國文科の學生だった。彼は八・一五解放後、母と妹を大阪に残し、また中學時代から世話になった、神戸にいる従兄南承日とも別れて、獨立した祖國へ一人で玄海灘を渡って歸ってきた。彼はたしかに自ら「祖國へ歸る」という表現をしたが、しきし家族を日本に残した在日朝鮮人として、心情的には必ずしもそのことばと合致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だからこそ南承之はいっそう自分を「歸る」立場に置いたといえるだろう。⁴³⁾

이처럼 남승지가 귀국 이유는 단지 조선이 해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그는 해방된 현실에서 일본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승지는 삶의 근거를 일본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 않았다. 위

41) 여기서 언급한 ‘재일’의 형태는 몇 가지로 유형화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재일’을 포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42) 이 부분은 사실 김석범의 개인적인 전기를 연상시킨다. 김석범 역시 제주도 출신으로서 해방 당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홀어머니가 하숙을 치고 재봉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 남승지 역시 홀어머니가 오사카의 이카이노에서 재봉일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 金石範, 『新編 在日の思想』, p.319의 年譜 및 『火山島Ⅱ』, p.82 참조. 물론 이런 사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석범은 어머니 뱃속에서 일본으로 왔다. 그렇지만 남승지는 사촌 형인 남승일을 따라 어머니보다 빨리 일본에 왔고, 어머니는 3, 4년 뒤에 일본으로 온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43) 『火山島Ⅰ』, p.44

의 인용문의 ‘조국에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의 심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남승지는 ‘조국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돌아가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는 주관적인 성향이 강했고, 감성적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또한 남승지가 “경제과”에서 “국문과”로 적을 옮겼다는 사실에서도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승지는 원래 사회발전의 경제적 법칙을 공부하기 위해 “경제과”에 다니고 있었다. 남승지는 사회발전의 경제적 법칙을 공부해 보고 싶었고, 일본 관헌에 의한 공산주의나 유물사관 등의 금기가 파괴된 이후여서 ‘자기의 내면세계야 어떻든 역사발전의 객관적 법칙은 자기와 독립된 곳에 있다는 인식’⁴⁴⁾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남승지는 ‘자신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남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자폐적 성향’⁴⁵⁾과 그 객관적인 현실이 자신을 속박해 오자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국문과로 적을 옮겨버린다. 물론 ‘식민지 민족으로서 빼앗기고 잃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되찾고 싶다는 강한 욕구’⁴⁶⁾도 여기에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혁명이나 투쟁, 또는 역사발전의 경제적 법칙처럼 국문과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국문과로 옮긴 후 “國文”이 아닌 “국문”에 신선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승지는 대단히 감성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당시 서울에서 상영되었던 영화 ‘죄와 벌’을 보고는 인간에게 벌레를 죽일 권리가 있는지 고민하고, 잠자리에서 내의를 벗어 이를 잡으면서도 자신에게 이를 죽일 권리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다.⁴⁷⁾ 또한 그는 처음 참가한 제주학우회에서도 퇴폐적이고 부르조아적이라고 비판당하고 있는 김동진(남승지는 김동진의 권유로 학우회에 처음 나온 것이다)의 소설을 혼자 변호하다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이처럼 감성적이고 때로는 자폐적이기까지 한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논리로 행동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점은, 그가 지닌 <재일>의 논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44) 金石範, 『火山島 I』, p.42

45) 같은 책, 같은 곳.

46) 같은 책, 같은 곳.

47) 金石範, 같은 책, p.48

감성적이고 자기의 내면에만 휩싸여 있는 남송지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해방된 조국의 현실이다. 물론 그가 처음 귀국할 때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귀국 자체가 해방된 조국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민주적인 새로운 조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남송지 자신도 새로운 건설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남송지는 일본에서의 중학 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양준오'와 나누었던 고베(新戸) 해변에서의 대화를 잊지 못한다. 양준오는 당시부터 '민족'에 눈을 뜬 민족주의자였고, 남송지는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それわこの波の打ち寄せるさまと同じようなものさ」

梁俊午が重たい口調でいった。

「え……?」

南承之は問い返すように相手のほうを見た。梁俊午のことは、日本がほんとうに敗北するだろうかという相手の疑問に對するもだった。

「波が引いてはま打つ寄せてくるでしょう。引くときよりも打ち寄せてくる勢いのほうが強い。しかしね、いくら打ち寄せてきても、大勢はいま干潮打ということなんだよ。大波も干潮に逆らうことができない。もはや岸を洗うことはできないんだ。日本はまさしく干潮のなかにあるんだ。どうともならんのだよ……海にはやがて満潮が来る。しかし日本には満潮は来ない。そして戦争が終わる。にほん帝國が敗れて、朝鮮は獨立する。」

-中 略-

梁俊午は戦後まもなく朝鮮へ、まるで故郷に自分を待つ肉親でもいるかのようにして歸って行った。朝鮮は獨立したんだ、きみももたもたせず祖國へ歸るんだ、新しい祖國の建設に青春を捧げるんだ……。一足先に日本を離れながら彼はいったものだった。

새로운 조국 건설에 청춘을 바친다는 양준오의 말은 남송지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배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고 보면 해방된 조국의 상황은 새로운 희망에 가득차 있어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된 조선의 현실은 남송지를 실망시킨다. 해방자인 줄 알았던 미국은 일본제국의 강력한 후임자였다. 심지어 미군정청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 엔도(遠藤柳作)에게 고문(顧問)을 요청⁴⁸⁾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해방된 조국에는

여전히 친일파가 득세했고 고용테러단이 정계요인을 암살하고 밀수꾼과 모리배가 판치는 세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승지는 가정교사를 하며 생활하려고 했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고 마침내는 영양실조에 걸리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승지는 데모에 참가하게 되고 체포되어 친일파 출신의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한다.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남승지를 투사로 변모시킨다. 남승지는 결국 서울을 떠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남로당에 입당하여 지하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 희망을 품고 돌아온 만큼 그는 운상길처럼 다시 일본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제 도피처였고 남승지는 ‘꿈이 산산이 깨져버린 해방 후의 이 혼란한 조국’에서 ‘많은 적든 허무적’⁴⁸⁾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그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방 후에 귀국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なんで 日本へ行くんだろう?」

南承之がいった。自分の唇に乗せる日本ということばが引っかかり、聲がちょっとかすれた。尹相吉が島を出たというのも昨夜聞いたばかりではないか。

「なんでだって? それは第二の棄郷というところだろ、故郷を棄てるんだよ、一種の逃亡さ。ほとんどが日本から歸ってきた運中だがらね……。あ、承之トムム、きみは氣を悪くしないでくれ、みんながそうだというわけじゃない。結局、棄郷して行くところは、そこしかないということなんだろう。」

棄郷して行くところはそこしかない……。いや、裏返せば、棄郷しても行くところがあるの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ろう。南承之は金東辰の微笑のかげりに、日本へ行きたいかも知れない彼の願望を見ようとしたのは思いすごしたとさとした。彼のいう「棄郷」する者たちへ一種の失望感とその曇った微笑を誘い出したに違いなかった。それにしても、ほとんどが日本から歸ってきた運中だという指摘は、實際がそうであるだけに辛かった。⁵⁰⁾

해방 후의 일본행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논리는 남승지나 김동진 등에게만

48) 『火山島 I』, pp.45-46

49) 『火山島 I』, p.27

50) 같은 책, pp.37-38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인 이방근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특히 이방근은 국민학교 5학년 때 봉안전에 소변을 본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했고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인물이다. 비록 병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으나 이방근은 사상운동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전향서를 썼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만의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⁵¹⁾. 그렇지만 4·3을 코앞에 둔 긴박한 제주사정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좌·우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지만 현실의 상황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이런 이방근 역시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일본행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그는 이 외진 섬에 그 무슨 대단한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제주도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일제시대의 투옥경험과 해방 후의 현실이 그를 니힐리스틱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제주도에 대한 애정만큼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의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를 보이던 인물들이 작품의 결말에서 어떤 논리로 일본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결말에서 이방근이 남승지를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일본행에 동의한 것이며 따라서 앞의 논리대로라면 도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이방근은, 남승지가 관음사 전투에서 잡혀 성내의 알콜 공장으로 연행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청년단(구, 서북청년단) 제주도지부장인 함병호를 만난다. 이방근은 ‘한 명의 패잔게릴라를 섬 밖으로, 아니 대한민국 밖으로 쫓아내 버리는 것’은 함병호라면 쓸모없는 짐 가운데 하나를 빼돌리는 것이라며 그와 협상을 한다.⁵²⁾ 이는 결국 돈으로 남승지를 사자는 것인데, 함병호는 150만원에 이를 수락하고 남승지를 빼돌려 이방근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이방근은 곧장 남승지를 일본으로 밀항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물론 남승지는 이를 거부한다.

51) 그러나 그는 은밀히 좌익계열의 출판사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52) 『火山島Ⅶ』, p.496

南承之は出島を拒んだ。李芳根は抗辯を許さず一切の猶豫を與えなかつた。軀は衰弱しているが動けない状態ではない。明日、韓大用が来る。今晚、明日、あるいは明後日までよく食べ、ゆっくり休んでから出發する。いっしょに收容されていた者たちはあした山地築港から本土へ移送されるという話だ。すでにゲリラ自體が全員の脱出を考えていたんだ。日本へ行かずに、どこへ行く。麻浦刑務所か? ふたたび漢拏山へか?(李芳根は、死の山とはいわなかった) この島にとどまるのか? やつらの手先として。智異山ゲリラ合流のために、島を出るような船はないぞ。⁵³⁾

제주도를 떠나지 않겠다는 남승지에게 이방근은 함께 연행된 게릴라들과 본토로 이송될 것인지, 일본에 가지 않겠다면 마포형무소에 갈 것인지, 다시 한라산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리산에 들어가 다시 게릴라 활동을 할 것인지를 쉬지 않고 물어 말할 틈을 주지 않는다. 사실 일본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죽음의 길일뿐이다. 4·3의 와중에 제주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나마 남승지라도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방근은 승산도 없는 무계획적인 게릴라 투쟁에 반대하며, '산 속의 게릴라 전원을 조직적으로 섬에서 탈출'⁵⁴⁾시키려는 낭만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남로당 측으로부터 '악질적인 조직 파괴 행위, 도전 행위, 반혁명적 행위, 매국 행위'라는 비난을 듣는다. 아울러 남로당 측에서는 주어진 유예기간에 이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이방근을 산으로 납치하거나 처형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방근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비록 이방근의 낭만적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 게릴라 구출작전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획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이방근은 남승지의 일본행을 이와 같은 논리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승지는 더 이상 이방근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남승지가 일본행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 욕망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 남승지는 이방근에게 양준오의 죽음을 전해준다. 양준오는 3월 초순경, 조직의 식량 확보, 그리고 조직의 투쟁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책임자의 반론에 자기비판을 거부한 채 아지트를 떠나려다 반당적 기회주의, 투항·패배주의 분자로 몰려 처형되었다는 것⁵⁵⁾이

53) 『火山島Ⅶ』, pp.497-498

54) 『火山島Ⅵ』, p.431

다. 이말을 들은 이방근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물론 이방근의 충격은 자신이 아끼던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조직 즉 당에서 그를 처형했다는 사실에 있다. 당에게 양준오는 적이 아니며 더욱이 정세용⁵⁶⁾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그 방침을 비판하였다 하여 그를 죽여버린다. 동지간의 처형을 이방근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양준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남승지도 이에 못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의 방침에 비판적이던 양준오는 남승지를 매개로 입당하였고 게릴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승지는 그의 죽음에 절망하고 당과 조직에 절망한다. 거기다가 한라신문의 인쇄공이던 김문원의 죽음까지 남승지를 절망으로 몰아 넣는다.

「芳根氏」南承之が沈黙の幕を静かに開いた。「私は濟州島を出ません。」

「その話はいうな。すんでいる。」

右手に額預けた李芳根は眼を閉じたままいった。

「すんでいません」

「……」

「梁俊午同志は、日本の神戸時代から尊敬する友人で、先輩でした。私はこの土地で、絶望のなかで死にたいくらいだ……」

南承之が顔を隠すように右手を額にやった。

「梁俊午のことはやめろ」

李芳根は姿勢を變えなかった。

「ハルラ新聞の金文源同志を死なせたのも私です。」

南承之は見向きもしない李芳根にかまわず、話を續けた。“宣戦布告”ピラ三千枚印刷の組織命令の直接指示者は自分であり、もうあのとき無条件服従の組織原則に反して、金文源がピラ印刷の革命的任務遂行を拒否して反革命的立場に立った長合、自分はオルグとしての責任を問われて何らかの組織的制裁が加えられただろう、いや自分はそれを恐れて歸山できなかったかも知れない、化の決死的なピラ印刷遂行で自分は生き延びたのだ……⁵⁷⁾

55) 같은 책, pp.498-499

56) 정세용은 이방근의 외가 친척으로 제주경찰서의 경무계장이었다. 그는 4·3직후 군과 게릴라 측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져 입산자들이 하산하자 그들을 공격하여 화평을 파괴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는 게릴라에게 납치되었고, 이방근은 그를 죽여버린다.

57) 『火山島Ⅶ』, pp.499-500

제주도에는 인쇄소가 몇 개 없을 뿐 아니라, 4·3봉기의 선언문도 한라신문사 기자였던 김동진을 통하여 만들었던 까닭에 뼈라를 인쇄한 주인공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었다. 김동진의 경우에는 곧바로 입산하여 게릴라가 되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김문원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조직은 무모하게 인쇄를 강행하였고, 남송지는 김문원의 직접지시자로서, 자신의 지시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당과 조직으로부터 문책을 당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당이란 또는 조직이란 동지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무조건 강행해야만 한다는 야만적 교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과 조직의 결정은 절대적인 까닭에 결코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⁵⁸⁾과 만약 번복된다면 위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것이다.

남송지의 절망은 이 때문에 더욱 깊어진다.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몸을 맡기고 신념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결국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남송지의 일본행이, 당과 조직의 절대성, 교조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김시종⁵⁹⁾의 지적은 타당하다. 조직과 당의 절대성과 비인간성을 절감한 남송지의 경우 일본에서의 삶은 어떤 형태이든 이를 비판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재일>한인과 문학의 존재방식

(1) <재일>과 공적 영역의 삶

이제 일본으로 간 남송지의 삶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재일>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들 삶과 문학의 존재방식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남송지의 삶은 양준오와 김문원 등을 비롯한 수많은 죽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죽음은 남송지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58) 당의 이런 교조성은 이방근이 수시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59) 김시종, '김석범의 장편소설 『화산도』의 완결에 붙여', 『每日新聞』, 1997. 12.11.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방근은 남승지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시계를 풀어 준다. 결국 남승지는 제주도의 이방근과 시간을 공유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방근은 남승지를 일본으로 보내고 난 후, 제주도에서의 무자비한 토벌작전이 끝나자 결국 자살하고 만다. 남승지의 삶 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얹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승지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죽음의 담보 위에 구축된 삶이며, 따라서 남승지에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남겨 놓은 엄청난 빛이다. 그러므로 어찌면 제주도에서 끝났어야 할 그의 삶은 그 빛을 갚을 때까지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 남승지는 그 빛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강력하고 실천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방근은 남승지에게 시계와 더불어 누이동생 이유원도 남승지에게 맡겨 둔다. 물론 이유원이 일본으로 간 것은 이방근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이유원은 애초에 음악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가고 싶어했지만, 국내의 정세가 심상찮게 흘러가자 자기만 도피할 수 없다며 일본행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이방근은 이유원이 국내정세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동란의 섬에 여동생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가족적인 심정'⁶⁰⁾으로 일본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만 두고 본다면 이방근의 이 행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이방근은 일본으로 떠나는 남승지에게 이유원의 주소를 건네준다. 아직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남승지는 이를 거부하지만 이방근은 완강하게 남승지를 제지한다. 특히 남승지와 이유원은 서로 애정을 쌓아가던 사이였었다. 그리고 남승지는 무장봉기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결혼 후 일본에서 정착하라는 남승일과 늙은 어머니의 요구를 이유원과 결혼하겠다고 거부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유원과 남승지의 결합 역시 예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남승지는 이유원을 통해 이방근과 양준오 등의 존재를 계속해서

60) 『火山島Ⅶ』, p.76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남송지의 삶은 한 개인의 영역에 머물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남송지의 <재일> 근거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2) 공적 담론의 지향과 문학의 존재방식

남송지와 같은 삶의 형태는 소설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火山島』의 경우를 보더라도 목탁영감이나 부스럼 영감 등 지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장 인물은 서로의 삶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만큼 자신만의 사적 영역을 지향하는 사람은 없다. 즉 모든 담론과 행위가 공적인 영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개인의 삶이 다른 인물을 통해 투명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이방근의 삶은, 남송지나 양준오 그리고 이유원, 나아가서는 그를 입당시키려고 노력하는 유달현과 강몽구, 박갑삼 등에 의해 날날이 해부된다. 마찬가지로 남송지의 삶은 이방근과 이유원 등을 통해 아주 작은 변화까지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일본에서 적극적인 협화회 활동을 하다 해방 후 열렬한 당원으로 변신한 유달현의 경우, 당중앙의 특별한 선이라는 박갑삼(황동성)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배신이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박갑삼은 일본에서 중학시절을 같이 보낸 우상배라는 인물에 의해 과거의 친일 행적이 밝혀지고 나중에는 반민특위에 급거된다. 더욱이 이유원에게 청혼했다 거절당하는 최용학의 경우, 유원에게 보낸 유치한 협박조의 편지가 이방근에게 전달되고 남송지에게까지 공개되며 급기야 이방근은 그 편지를 최상화(최용학의 삼촌으로 이승만의 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함)에게 협박용으로 내밀어 버린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 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응징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박갑삼의 예언대로 유달현은 당원명부를 정세용에게 팔아넘기고 일본으로 밀항하려다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군과 게릴라의 화평 교섭을 깨뜨린 정세용은 그 비밀이 탄로나게 되고 마침내는 이방근의 손에 죽게 된다.

『火山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김석범 소설의 공통적인 특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김석범의 처녀작으로 알려진 『까마귀의 죽음』

에서의 정기준은 그의 연인이었던 “장양순”이 늘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기준의 의식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양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주요인물 중의 하나인 이상근은 언제나 정기준을 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등장인물의 행위를 제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그들의 행위와 사고가 이렇게 감시(또는 지켜보는 눈길)을 의식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김석범의 등장인물들이 개인적인 실존이나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작품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똥과 자유』의 “성태일”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성태일은 자기의 “짜궁”이던 이명식이 탈출에 실패하고 잡혀와 동료 노동자들의 매질 속에 죽어갈 때, 그 역시 거부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이명식의 시체에 몽둥이가 박히도록 매질을 한다. 성태일의 이 행위는 이후 그의 의식에 찢겨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다. 육신을 떠난 이명식의 영혼이 자기를 내려다보며 질책하기도 하고 그의 의식을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식을 때리기를 끝까지 거부한 “용백”(만덕유령기담의 만덕을 연상시키는 인물) 또한 성태일의 의식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물이라면 응당 맞아 죽었을 용백(부모도 모르며 따라서 자기의 성도 모른다. 오직 스님이 지어준 자기의 범명만이 자신의 이름인 줄 안다. 창씨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명이 아닌 어떤 이름도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인물이기도 함)은 늘 성태일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성태일은 결국 똥통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그 역시 똥통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⁶¹⁾

위와 같은 특징들은 수많은 죽음 위에 바탕을 둔 <재일>이라는 상황과 부채 의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곧 <재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문학 역시 공적인 삶과 담론을 지향할

61) 또한 『관덕정』의 경우 부스럼 영감과 같은 어수룩한 바보형 인물은 독자들의 의식을 겨냥하고 있다. 즉 소춘이의 죽음을 목격한 부스럼 영감은 한순간에 늙어버리고 경찰에 관계된 일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며 떠도는 것이다. 그가 떠도는 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위의 말을 들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독자의 의식 속을 파고 들 수밖에 없다. 이는 부스럼영감이 할 일이 없어졌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김석범의 문학을 중심으로 <재일>의 특징과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일>은 단순히 일본에 살고 있다는 개념을 넘어 그들 존재의 기반이었고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실천적 삶의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를 멈출 때, 그들의 존재 이유 역시 소멸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특히 김석범의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작품에서 <재일>의 논리는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석범이 평생 동안 매달려 왔다고 할 수 있는 『火山島』는 또한 <재일>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작품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남승지'는 <재일>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남승지'의 <재일>은 우선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딛고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 일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 인연으로 남로당에 자신이 입당시킨 양준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던 제주 한라일보의 '김동진', 그리고 자신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문원'의 죽음 등이 '남승지'의 <재일>을 떠받치고 있다. 나아가 남로당원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후원자였던 '이방근'의 죽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모두 혼란스러웠던 해방 이후 남한 정국의 적극적 비판자였으며, 또 '당'이 보여준 교조적 태도에도 강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던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죽음 위에 선 남승지의 <재일>은 강한 부채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삶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공적인 영역을 지향하게 된다. 김석범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 등은, 그

의 작품이 바로 이같은 <재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김석범의 언어관과 소설작품과의 연관성이나, 여타의 많은 작품 및 저작들을 통한 총체적 연구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김석범의 작품이 대부분 4·3과 제주도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실과 그의 소설 작품과의 연관성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역사적 사건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과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작가들의 작품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의 작품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음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시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일', '재일하다', 존재방식, 소라게의 삶, 적극적 행위, 공적(公的) 영역, 부채의식

참고문헌

1. 자료

- 金石範, 『鴉の死』(東京: 講談社, 1971)
 金石範, 『火山島』(東京: 文藝春秋社, 1983, 1997)

2. 외국논저

- 「大佛次郎賞『火山島』, 故郷濟州道の武裝蜂起を描いた, 金石範氏「見みえない怒り」(週刊朝日, 1984. 10. 12.)
 金石範, 「いま, 「在日」にとって「國籍」とは何か, 李恢成君への手紙」(『世界』, 1998. 10.)
 金石範, 「再びの韓國, 再びの濟州道(二)-火山島への道」(『世界』, 1997.4.)
 金石範, 「再びの韓國, 再びの濟州道(一)-火山島への道」(『世界』, 1997.2.)

- 金石範, 「再び「在日」にとっての「国籍」について,-準統一国籍の制定を」(『世界』, 1999. 5.)
- 金石範, 『「在日」の思想』(동경 : 筑摩書房, 1984)
- 金石範, 『故國行』(동경, 岩波書店, 1990)
- 金石範, 『口あるものは語れ』(동경 : 筑摩書房, 1975)
- 金石範, 『民族・ことば・文學』(동경 : 創樹社, 1976)
- 金石範, 『新編「在日」の思想』(東京, 講談社, 2001)
- 金石範・金時鐘,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濟州道 4・3事件の記憶と文學』(東京, 平凡社, 2001)
- 小野悌次郎,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學』(東京, 新幹社, 1998)
-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東京, 講談社, 1998)
- 李恢成, 『イムジン江をめざすとき』(角川書店, 1975-소화 50년)
- 李恢成, 『「無国籍者」の往く道 金石範氏への回答』(『世界』, 1999. 1.)
- 座談會昭和文學史(X X), 『在日朝鮮人文學-日本語文學と日本文學』(『すばる』, 2001. 10.)
-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據-李恢成・金石範・金鶴泳』(國文社, 1983)
- 中村福治, 『金石範と「火山島」-濟州道 4・3事件と在日朝鮮人文學』(東京, 同時代社, 2001)

3. 국내논저

- 김길호, 「재일 외국인 작가군의 부상과 일본문단의 근황」(『라벨룸』, 1997. 봄)
- 김석범, 「화산도에 대하여」, 실천문학, 1988. 가을
- 김운, 「〈재일본〉민족분단과 이념의 갈등」(『韓國文學』, 1991. 7・8합본호)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김윤식,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출판부, 1987.
- 김윤식,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 김총령, 「재일동포 문학의 세계-해방 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교포정책자료』 31,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9. 10.
-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 박명림,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 심애니, 「재일교포 소설문학 연구-한국문학사적 수용을 위한 시론-」, 중앙대 석사논문, 1990. 12.
- 아라리연구원 편,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94.
- 양왕용 외, 「일제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문학활동과 문학의식 연구」, 부산대출판부, 1998.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연구」(역사비평사, 1999)
-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 이한창, 「재일 한국인 문학의 역사와 그 현황」, 『일본연구』5, 중앙대 일본연구소, 1990.
- 이한창, 「재일교포 문학 연구」, 『외국문학』, 열음사, 1994. 겨울.
- 이한창, 「재일교포 문학의 주제 연구」, 『일본학보』29, 한국일본학회, 1992. 11.
-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의 작품성향연구-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6.
- 임현영, 「해외동포 문학의 의의」(『韓國文學』, 1991. 7·8합본호)
- 濟民日報 4·3 취재반, 『大河實錄 제주민중운동사 4·3은 말한다』1~5(전예원, 1994)
-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자료집』1, 2(선인, 2001)

<要約>

在日韓人文學の存在方式

Lee, Jae-Bong

在日韓人文學についての今までの研究は民族的正體性という立場から主に出てきている。しかしこれと同じ研究は一定な意義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少し間違えれば在日韓人文學の周邊部の文學をこれときめる危険性を持っているともする。そうであるから在日韓人文學を研究しようとするれば、それらが追求する論理を明かす事が何よりも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える。このような前提から本論文では解放後、在日1世代の代表的な作家で今まで旺盛な作品活動をしている金石範と彼の作品で範圍を限定して <在日>特徴と論理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在日>は單純に日本に住んでいるという概念をこえて、彼ら存在の基盤であり、条件立ったという事を確認することが出来た。すなわち <在日>は受動的だったり消極的な態度ではなくて能動的で積極的に追求しなければ實踐的な人生の論理で機能していた。だからこのような行為をとめる時、それらの存在理由やはり消滅してしまうことがあった。

このような理由で<在日>の論理は一生を聞いて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意味を持っていた。金石範が一生の作業をかかげてきた『火山島』はこのようなく在日>の意味をとともよくあらわしている作品としてもある。特にこの作品の重要な1軸をなしている‘南承之’は<在日>の姿を追跡できる核心的な人物である。南承之の<在日>はまず多くの同僚の‘死’を踏んでたっていると言える。解放以前、日本で多くの影響を受け、そのいう因縁で南勞黨に自分が入党させた‘梁俊午’、そうして志を共にした濟州ハンラ日報の‘金東辰’、そうして自分にも直接的な責任がある‘金文元’の死が南承之の<在日>を支えている。進んで南勞黨員ではなかったが李芳根の死、やはり抜くことができない重要な意味を持つ。これらはすべて混乱していた解放以後、南朝鮮政局の批判者であった、又黨が見せた教條的な態度にも強い批判意識を持っていた人物だ。

それでこれらの死の上に立った南承之の<在日>は強い負債意識に基盤をおいているしかないと言えそうである。だから彼の人生は積極的で実践的な行爲になるしかなくて、公的な領域を指向することになる。金石範の小説に登場するほとんどの人物たちがお互いを照らす鏡のような存在で形象化されていることや個人的で私的人生は調べにくくなっていることなどは、彼の作品がまさにこのようなく<在日>の論理に根據しているからであると言える。